
금융·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

2024. 6.

금 융 위 원 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금융·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	2
1. 금융-통신 통합채무조정	2
2. 실질적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	3
3. 성실상환·자활노력을 위한 지원체계	5
III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	6

I. 추진 배경

- **(추진배경)** 금융·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채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여 재기가 어려움
 - 통신비 미납시 일상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이 어려워지는 만큼, 통신채무 연체자들은 경제상황이 보다 절박
 - 더욱이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,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등 취약층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
 - * 채무조정 신청추이(만건) : ('20년)12.8 ('21년)12.7 ('22년)13.8 ('23년)18.5
 - 이들은 추심과정에서의 도피, 전화제약으로 일상과 단절되고, 통신비 부담으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거나 금융채무도 불이행
- ⇒ 금융·통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※ 금융-통신 통합 채무조정 수요 사례(1.17일 발표 이후 신복위 문의 사례)

- ▶ A씨는 코로나19시기 빚이 발생 독서실 폐업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채무조정 이행중 이나 배우자 허리디스크 치료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액결제 100만원 이용, 연체 발생중
- ▶ B씨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핸드폰 요금도 연체(200만원)되어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이 추심을 피해다니며 가족들과도 연락두절된 상황

- **(추진경과)** 대통령 주재 금융부문 민생토론회(1.17일)에서 통합채무조정을 금융위-과기정통부 협업과제로 발표
- 기관간 협의, 신복위-통신업계 MOU(3.12일) 등을 거쳐 금융-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
- * 참여범위 : [통신비]이통3사, 알뜰폰 20개사 [휴대폰결제] 상위 6개사(시장점유율 98%)

Ⅱ. 금융·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

1 금융·통신 통합 채무조정

채무자가 **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통신채무 부담을 신복위가 조정**

□ (현행) 금융채무는 신복위에서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하나, 통신채무(통신비, 소액결제)는 직접 채무조정 불가(기기비는 직접조정 가능)

○ 통신비, 소액결제는 신복위 금융채무 조정자가 “통신사에 신청”(번거로운 절차)할 경우 “5개월 분납”만 가능(지원수준 제한)

□ (개선)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하여 채무조정

① (추심) 신복위(☎1600-5500)에 채무조정 신청시 추심 중단

② (신청절차)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통신사 방문 없이 신복위에서 원스톱으로 채무조정

③ (지원수준)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조사하여 분할상환, 원금감면(최대 10년)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을 조정

※ 원금감면 수준

(i)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: 최대 90% 원금감면

(ii) 그 외 일반 채무자

- 통신3사 : 30% 일괄감면

- 알뜰폰, 휴대폰결제사 : 상환능력에 따라 0~70% 감면

조정된 채무를 **성실히 갚고** 채무자 스스로 **재기노력**을 하도록 지원

□ 채무조정 성실히 이용시 통신이용 재개

- (현행)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는 통신 이용이 차단되어 일상생활과 단절되고,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움*

* 일부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, 기본적인 서류발급에도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 발생

- (개선) 통신채무 완납 전이라도 채무조정 3개월 성실상환시 전화 이용을 재개

□ 채무자 스스로 재기의지를 갖고 성실히 상환하도록 고용연계

- 채무조정 이용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채무조정을 정상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* 연계 지원

* 국민취업지원제도, 내일배움카드사업(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) 등
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취업 컨설팅을 받은 채무조정 성실 이용자(청년)의 직업훈련비, 면접비 지원을 통해 취업노력 유도

□ 정상적인 경제·금융활동 재개를 위한 채무자 맞춤형 신용관리

- 오랜 기간 연체로 경제·금융활동이 제한된 상황인 만큼, 정상적인 경제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 맞춤형 신용관리 강화

※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신용관리 지원 내용

- ① (채무조정 신청시) 통장압류 해제, 체크카드 사용, 신용관리방법 안내
- ② (성실상환 4개월) 신용점수 상승방법, 신용·재무관리 진단보고서 및 솔루션 제공
- ③ (성실상환 9개월) 채무문제 조기해결 및 재기 방안, 여타 복합지원 상담

채무자의 고의연체,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**성실상환**을 유도

□ 신복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등 중층적 심사 과정을 통해 고의연체, 도덕적 해이 소지를 최소화

① 객관적인 자료*를 통해 재산·소득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,

* 소득,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등을 채무자 신고자료 외에 공적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

②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**과다 재산·소득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**

③ 채권자인 통신업계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성립

□ 채무자 스스로 갚아나갈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축

○ (성실상환) 상환기간별로 일상생활 복귀(회선복구),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을 제공

○ (자활의지) 채무자 자활에 필요한 신용·복지정보를 제공하고, 신용·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이수자에게 격려금 지급

<성실상환·자활노력 인센티브>

구분	인센티브	지원내용
성실상환 유도	통신이용 재개	▶ 채무조정 3개월 성실상환자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
	체크카드 발급	▶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(후불교통 가능)
	일시상환 추가감면	▶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 일시상환시 15% 추가감면
자활의지 제고	신용복지 컨설팅	▶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상환기간별 맞춤형 상담 콘텐츠 지원
	신용개선 격려금	▶ 40세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후 신용점수 상승시 신용개선격려금 지급
	취업촉진 지원금	▶ 40세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취업 컨설팅 후 직업훈련비, 면접비 지원을 통해 취업노력 유도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1. 기대효과

☐ 37만명(최대)의 통신채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

- “갚을 수 있는 수준”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,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적 재기 노력 유도
- 복지연계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

☐ 전화, 문자 등 사용이 재개되어 일상생활로 원활하게 복귀

- 신용관리, 체크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·금융생활 영위

※ 참고 : 「금융·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」 참여 통신회사

통신업(23) * 시장점유율 98%	① 이동통신 3사 : SKT, KT, LGU ⁺
	②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: 세종텔레콤, LG헬로비전, 프리텔레콤, 아이즈비전, 유니컴즈, 큰사람 커넥트, 한국케이بل텔레콤, SK텔링크, 토스모바일, ACN코리아, KTM모바일, 미디어로그, 스마텔, 에넥스텔레콤, 위너스텔, 인스코비, KB리브엠, 스테이지파이브, 한국피엠오, 조이텔
휴대폰 결제(6) * 시장점유율 99%	③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 : KG모빌리언스, 다날, 갤럭시아머니트리, 페이레터, NHN KCP, 헥토파이낸셜

2. 향후 계획

☐ 6.21일 통신 채무조정 신청 개시

☐ 8~9월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